

Marita G. Schmitz

'어둠' 쌍둥이의 매력



내 소울메이트 동화 이야기
- 실화 -

'어둠' 쌍둥이의 매력

제 열아홉 번째 생일 직후였어요. 첫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였는데, 사실 그와 동거할 계획까지 세웠었거든요. 부모님 집에서 나와 처음으로 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독립하고 싶었고, 직장 근처에 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방세와 식비를 드리는 건 절대 안 되겠다고 다짐했죠.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사하기 몇 주 전, 친구가 우리 도시에서 하는 일종의 전화 회의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였죠. 한번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밌었어요. 모두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무도 본명을 쓰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닉네임을 지어야 했어요. 대부분 동물 이름이나 영화 캐릭터 이름을 썼더라고요.

정말 재밌었고, 나중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몇 개 있었는데, 네, 진짜 그룹들이 생겨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동의하는 장소를 정하고, 드디어 만났죠. 첫 모임은 꽤 작았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한 10~15 명 정도였죠.

첫 모임에 가기 전에 누군가 아주 친근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모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친해졌어요. 모두 정말 잘 어울렸죠. 즐거운 모임이었습니다. 이름만 알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얼굴까지 볼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정말 재밌었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러 가기도 하고, 그냥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보통은 정해진 장소(비스트로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는데, 이제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저도 함께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말 좋아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겨우 19살이었고 그는 이미 25살이었죠. 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우리는 친구 같은 사이였고, 저는 거의 2년 동안 사귀었던 첫 남자친구와 막 헤어진 참이었어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저는 막 독립해서 인생을 즐기고 싶었어요. 춤도 추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었죠. 모든 걸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로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제 성격과 삶에 대한 열정에
폭 빠진 것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모험에 끌렸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서로를 집에서 데리러
가거나,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한 번도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은 좀 이상했어요. 한번은 모임에서
제가 그의 어깨에 팔을 둘렀는데...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우린 그냥 친구
사이고, 괜찮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문득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내가 그에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그만큼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너무 남자애 같고 친구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어쩌면 그의 이상형에 맞지 않는 여자, 혹은 충분히 여성스럽지 못한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당시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가까웠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화로 그의 목소리를 듣는 건 언제나 마법 같았고, 사실 꽤 매혹적이기도 했어요.

저는 가고 싶은 곳이나 좋아하는 활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와 만나러 갔어요.

그 무렵에는 그곳에서 친구도 사귀게 되었죠. 주말에는 그 친구와 함께 춤을 추러 자주 갔어요. 댄스 클럽이나 디스코텍에 가기도 했고요. 그도 가끔씩 함께 갔어요.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여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여자친구 집이나 부모님 댁에 차를 몰고 가서 클럽에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우리는 어쩌다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제가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그 후로는 우연히 마주치는 일만 있었습니다. 그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다른 만남 장소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나 다를까, 거기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어머, 또 왔네!"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가 제가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다른 젊은 여성과 아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음, 결국 제가 조금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조금 질투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나를 알아줬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그와 나는 꽤 오랫동안, 적어도 2, 3년은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죠. 그러다 점심시간에 장을 보다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냥 서로 어디서 일하고 사는지 등을 이야기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제가 말을 좀 더듬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를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거든요. 점심시간이 짧았고 둘 다 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않고 금방 헤어졌어요. 그는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했고, 저는 새 남자친구와 함께 시골로 이사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계속 도시에서 일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만남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계속해서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치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죠.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아마 1 년쯤 후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지만,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더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고, 그의 환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를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뻐했을지. 음, 우리 사이에 뭔가 있는 건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는 건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남자친구에게 "옛 친구 잠깐 만나러 갈게..."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남자친구가 없는 주말에 그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45 분 거리였어요.)

그의 아파트에 들어가자 그는 저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아파트 좋네요."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의 반응은 어떨까?

저는 그의 입술에 키스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그는 내게 머물고 싶은지 물었지만, 그의 눈에 비친 두려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동시에 나도 두려웠다. 집에 이미 들켰을까 봐, 사람들이 벌써 나를 그리워할까 봐, 더 오래 떨어져 있으면 곤란해질까 봐 걱정됐다. 게다가 그때의 그 느낌이 다시 밀려왔다. 그가 정말 솔직한 걸까? 내가 그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충분히 여성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일까?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이 다시금 밀려왔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속으로 "아니,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이제 끝이야."라고 말했다.

며칠 후, 아니면 몇 주 후였을까—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먼저 답장 주소를 적었다가 바로 지웠다. 그리고 보냈다. 그게 전부였다.

약 2년 후, 나는 당시 남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그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 그곳에 남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꿈꾸곤 했다. 뭐, 결국엔 절대 알 수 없겠지, 하고 생각했다.

음, 당시 남자친구와는 결혼까지 포함해서 7년밖에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바람을 피웠죠. 그래서 집을 나왔고, 이혼했어요.

그 후 다시 그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제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전화번호를 몰랐고, 심지어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전화번호부에서 그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찾았죠.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들을 찾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질투심 많은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어."라고 하시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전화번호를 받지 못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 전화번호를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쉬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계속 그를 생각했는지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찾을 수 없었죠.

인터넷이 있었다면! - 만약 그때 인터넷이 있었다면 그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연히 마주칠 일도 없었고, 그가 다니던 회사가 없어져서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였죠! "뭐, 그는 행복하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그러다 약 2년 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1년쯤 후에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해서 10년 정도 함께 살았죠.

하지만 계속 그가 생각났어요. 그와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기도 했고요. 지금쯤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을까?